

P R U G I O

Life

Winter

다양한 개발혜택을 지닌
평택 용이 2차 푸르지오,
용이도시개발지구에서 만나세요

푸르지오 수납가구 구성을 위한 DB구축과 특화가구 디자인 개발프로젝트

총괄 디렉터 최병훈 교수

삶의 공간에 서로 다름의 가치를 어우르다

획일적으로 설계된 아파트 인테리어에서 가구 특성과 지역 특성을 근거로 구조뿐만 아니라 색상, 구조, 크기 등 저마다 다른 디자인을 꿈꾸는 푸르지오. 용도나 기능은 물론 서로 다른 미감과 정서, 가치가 반영된 가구를 통해 새로운 공간 창출을 이뤄내는 곳에 푸르지오 수납가구 구성을 위한 DB구축과 특화가구 디자인 개발 총괄 디렉터 최병훈 교수(홍익대 미술대학 학장)가 있다.

글 김정연 | 사진 김호영



가구는 삶의 공간을 한층 풍요롭게 하는 것

그곳에선 자연이 주인이었다. 파주 헤이리의 한 갤러리를 찾아 나선 토요일 이른 아침. 커피향보다 진하게 코끝을 파고드는 가을 향내와 바스락거리는 낙엽들 때문이었을까? 문득 긴 잠에서 깬 느낌이 들었다. 가을이 무르익어가는 산천 속에 들어앉은 아기자기한 건물들을 보며 걷자니 자연을 찾아온 손님이 된 기분이었다. 도시에선 인간의 문명에 밀려난 자연이, 이곳에선 인간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주변을 보듬고 있었다. 여치 한 마리가 갤러리 계단참에 딱 자리를 잡고 앉아 도망가지 않는다. 우리는 손님답게 조심스레 여치를 비켜 계단을 올라가야 했다. 이곳에서 자연과 참으로 잘 어울리는 작가와 작품을 만났다.



처음에는 최병훈 교수의 아트 퍼니처(art furniture)라고 해서 독특하고 화려한 가구를 연상했는데, 작품들은 가구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인위적이지 않았다. 언뜻 봐서는 유선의 나무와 돌들이 무심히 던져져 있는 것 같았다. 먼저 '아트 퍼니처'란 말에 대해 물었다.

“가구는 사용되지 않는 시간이 많죠. 예로 들어, 의자나 소파가 비어 있을 때 조형물 역할을 한다면 삶의 공간을 한층 풍요롭고 만족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창조성에 기능적인 요소가 가미된 미술과 디자인, 공예가 한데 어우러져 각기 역할을 분담하고 때론 충돌하면서 ‘아트 퍼니처’라는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나간다는 것이 작가이자 교육자인 최병훈의 지론이다.

현재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학장을 맡고 있으면서 홍익대학교 목조형가구학과 교수로서 관련 프로젝트와 전시회 등을 소화하고 있는 그는 이 개인전 외에도 올해 5월 프랑스에서 개인전을 열었고 국내의 두 세 개 프로젝트에도 참여해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왕성한 활동이다. 이 열정은 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단아하고 순량한 분위기의 외모 이면에 용암 같은 불덩어리가 담겨 있음에 틀림없다.

최병훈 교수에게는 많은 수식과 평들이 따라다닌다. ‘국내 아트 퍼니처의 선구자’ ‘한국적 전통에 현대적인 방법론 도입’ ‘유기적 모더니즘’ ‘자연적 미니멀리즘’ ‘영역을 넘나드는 작가’ 등등.

저마다 다른 가구가 모여 아름다움을 창출

핀란드와 미국에서 연구교수를 역임한 그는 1990년대 중반부터 유럽에서 먼저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어떤 점이 선진 예술 문화를 가진 프랑스인들의 이목을 끈 것일까?

“서양과 우리는 철학과 심성이 다릅니다. 서양의 장식적인 문화와 달리 우리는 절제와 겸양의 미덕이 있고 화려한 외양보다 내면의 세계를 중시하죠. 나에게 작품은 남들과 다른 자아의 실현 작업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찾고 차별성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이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로 만드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21세기를 사는 우리의 시대정신과 감각이 작품에 깃들어야 합니다. 통일과 통합에 몰두했던 20세기에서 나아가 21세기에는 다름의 가치를 찾고



미래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추구해야 해요.”

차별성과 보편성, 전통과 모더니즘, 과거와 미래, 통합과 충돌... 정체성과 다름의 가치를 강조하는 그에게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치열한 작가의 모습이 보였다. 덧붙인 한마디에서 그의 작품들이 자연을 닮은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다.

“서양의 자연관은 정복이지만 우리의 자연관은 자연 속으로 들어가,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순응하는 것이겠죠.”

그의 작품에는 유난히 의자가 많다. 독일 비트라 미술관에 영구 소장돼 있는 두 작품 중 하나도 의자이고, 올해 서울시 도시 프로젝트로 덕수궁 돌담길에 설치한 작품도 ‘자연을 닮은 의자’들이며 대표작도 의자고, 전시회에도 의자가 주를 이룬다. 무슨 이유라도 있는 걸까?

“의자는 가구의 기본이고 조형성 테스트에 좋은 데다 의복 다음으로 인간에게 밀접한 소재이기도 하지만, 저마다 사유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상징성도 있고요. 중세에 의자는 권위와 사회 계급의 상징이었고 현대에 와서는 사용자의 미적 감성과 정서를 대변하는 상징물로 사용되지요.”

최 교수가 맡아 디렉팅하는 ‘푸르지오 수납가구 구성을 위한 DB 구축과 특화 디자인 개발’도 이런 맥락에서 시작된 것이 아닐까. 이 프로젝트는 크기에 따라 획일적으로 설계되던 아파트 내부를 공간특성, 사용자 특성 및 수납물품 특성을 고려한 푸르지오만의 특별한 공간으로 디자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미 산학 협동으로 평형별, 가족구성별 수납실태를 조사하여 최적의 수납량과 기능을 산정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런 수납공간이 어느 방에 어떻게 디자인되는가 등 많은 고민을 통해 특화된 디자인을 적용시킬 예정이다.

이는 용도나 기능은 물론이고 서로 다른 미감과 정서, 가치가 반영된 가구로써 각자가 원하는 공간을 창출한다는 것이다. 삶의 공간 중 하나인 아파트에도 서로 다름의 가치와 그에 따른 기능성이 적용될 수 있다니 반가운 일이다.

“살면서 받은 감흥들을 잃지 않으면 세월 속에서 언젠가는 내 것이 되어 나오더라고요.” 가슴 뛰는 그의 예술혼이 언제까지나 시들지 않고 자연과 인간, 예술이 어우러진 21세기 삶의 공간을 만들어나가게 되기를 바란다. 푸르지오를 통해 그의 예술혼을 접한다는 건 큰 즐거움이다. P